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강화

무주군, 코로나19 예방 위해 독거노인·만성질환자 등 대상으로 이상 증상 여부 살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은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건강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팀원들과 각 진료소장, 읍면 간호사 등 총 19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전화통화를 통해 먼저 발열 및 호흡기질환 등의 이상 증상 유무를 체크한 후 증상에 따라 방문팀의 직접 관리 및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등이 진행된다.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장과 방문전담팀이 직접 방문해 진료를 실시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 의료지원팀 김선영 팀장은 “무주군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없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감진은 물론, 만일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 그리고 평소에도 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은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건강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위생수칙 실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무주읍을 시작으로 관내 6개 읍면(인구수별)에 면 마스크를 공급(총 3만장)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정문만 개방, 출입인 대상

발열 체크)에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해 둔 상태다.

이외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집합 및 이용 시설에도 방역물품을 배부했으며 지난 2일에는 관내 의료기관 25곳에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실내소독용 살균제 공급을 완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편리하게 행복콜센터 이용하세요”

농촌실정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위해 장수군으로 확장 이전 운영

장수군은 농촌실정에 맞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안군에 위치한 행복콜센터를 장계공용버스터미널로 확장 이전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행복콜센터는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택시를 부르면 1000원만 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의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

콜택시는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예약하면 운전자에게 메시지가 송출돼 버스와 택시를 교차 배치해 이용자가 요청한 목적지까지 운송, 이용요금은 성인 1,000원, 학생은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접수는 직원 8명이 투입돼 2팀으로 나뉘어 교대로 운영되며 콜택시는 미실시 지역인 장수읍, 장계면, 계남면까지 확대 운영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동절기 11월~2월 : 7시~18시)이며, 콜센터 접수마감은 운행마감시간 30분전이다. 콜센터 점심시간은 접수 불가능하다.

이용 접수는 장수읍(063-353-1353), 장계·계남면(063-353-1354), 산서·번암면(063-351-3000), 천천·계북면(063-351-300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복콜센터 이전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콜센터직원들이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읍면 이장회의시나 출장시 철저히 홍보하는 등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택시·버스 등 운송 차량에 대한 방역 및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홍보 나서

진안군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가부담액 중 15%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가입비의 5%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2개 품목이 추가되어 보장범위가 늘었으며, 기존 몇몇 피해와 가을 등·상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총 70개 품목이며, △사과·배·단감은 1~2월 △밤·고추 등은 4월 △벼는 4~6월 △콩은 6~7월 △수박·토마토·배추 등은 2~11월로 품목별 파종시기, 수확시기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농업인 및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코로나19 예방 대중 교통시설 방역 강화

터미널 방문객 대상 발열검사·손 소독 실시

진안군은 3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농어촌버스, 택시 등 차량과 대중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인 지난 1월부터 대중 교통시설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용품(손 세정제, 마스크) 지원과 차량 및 터미널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는 공용 터미널 내 검사대를 설치하고 매일 직원 6명을 투입

하여 찾차가 운행하는 6시부터 막차 시간인 22시까지 터미널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와 함께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발열검사서 이상증세가 있는 주민은 현장에서 진안군보건소와 전화문답을 연계하고 문답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곧바로 보건소로 이송할 방침이다.

또한, 터미널 소독도 그간 시행해왔던 자체소독 1일 4회 외에도 외부 소독 전문업체를 활용해 주 1회 이상으로 소독을 더욱 강화했다.

소독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안~대구간 시외버스운행을 지난달 24일부터 잠정 중단하고, 관내 버스 승강장 326개소 전체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내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지역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원천봉쇄한다는 목표로 다소 과할 정도의 방역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감염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부는 마스크 무상 공급해야”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이장단 통해 공급·방역체계 상시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3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마스크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춘성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행정에서는 이장단을 통한 마스크 공급시스템을 포함한 상시적인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춘성 예비후보는 진안을 출신으로 민선3기 진안군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문화체육과장, 진안읍장, 행정복지국장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취수장 집수정 청소 완료

무주군이 무주취수장 집수정 청소를 2월 26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완료했다고 밝혔다.

무주취수장 내에 길이 12m, 폭 6m, 깊이 10m규모로 위치한 집수정은 남대천(북류수)에서 끌어온 원수를 모아 두는 곳으로 무주군은 이번 청소를 통해 집수정 내부에 퇴적돼 있던 토사와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팀 박은석 팀장은 “날이 풀려 외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미생물 번식 등 수질오

염이 우려돼 원수 보호차원에서 집수정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후 집수정 청소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주기적으로 청소와 토사준설을 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수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수질 공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신속한 공급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려가 깊어진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소규모수도시설 143개소 수질검사 실시

진안군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각종 질병 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143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에 따라 이달 2일부터 2주간 수질검사를 진행하며,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등 정수기준 59개 항목과 우라늄 등이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이용 중지 후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초과원인을 파악해 시설 개선과 대체수원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물탱크 청소, 주변 환경정리와 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오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10월 29일부터 4일간 개최

올해 열리는 제1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4일 동안 의암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길수)는 지난 2일 2020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축제 기간을 당초 3일에서 4일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리는 제1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된다.

앞서 축제추진위원회는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가을 태풍(링링)으로 취소됨에 따라 축제 시기 조정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축제시기를 10월 말로 조정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